

중부권 사통팔달(四通八達) 산업보건기관, 대전산업보건센터

편집실

우리나라 최대의 교통의 요지인 한밭, 대전에 위치해 있는 대전산업보건센터를 방문했다. 신탄진역을 지나서 있는 대전센터는 대덕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제3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1999년 제4단지 조성작업을 마쳤다. 2005년에는 개발특구로 지정되었다. 이 단지는 총 31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근로자 수는 총 11,380명이다. 대전센터는 대덕산업단지 조성작업을 마친 1999년에 현재의 사옥을 신축했다.

대덕산업단지 내 대전센터의 활동을 활발하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대덕산업단지 안전관리자와 함께 안전보건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 12월에도 '무재해 결의 및 안전 문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동배 지부장



백종섭 사무국장

대전센터는 1984년에 개소했다. 대전센터 건물은 총 3층이다. 1층은 시설 보수를 계획하고 있고 2층은 건강진단 공간과 건강진단팀이 사용하고 있다. 3층은 보건관리팀, 환경위생팀과 운영지원팀이 사용하고 있다. 대전센터는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강진단팀





운영지원팀: 백종섭 사무국장, 양유진 과장, 지창훈 대리, 김철한 팀장



김대식 건강진단팀장



마인환 보건관리팀장



좌로부터 이동배 지부장, 송영복 원장, 김중문 치과원장, 전홍준 원장, 백종섭 사무국장

우선, 대전센터가 고객들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부터 물어보았다.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대전센터가 무엇보다 고객들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식 건강진단팀장은 '솔직함'이라고 답한다. 자세히 물었다. 1,000여 명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LG 화학 대산공장은 최근 대전센터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물론, '있는 그대로'의 검진 결과를 내놓았다. 어찌 보면 고객사에서 원하지 않는 판정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다. '정직'한 판정에 오히려 '믿음'으로 답해 줬다. '정직한 것이 실력'인 것을 인정해 줬다.

보건관리업무의 경우는 어떨까. 마인환 보건관리팀장은 "협회 보건관리는 우선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상담을 잘 합니다"라고 했다. 상담을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

보건관리팀: 김효일 대리, 장선영 간호사, 박기연 간호사, 정은희 대리, 윤계수 원장, 원선혜 차장, 마인환 팀장





환경위생팀



고평기 환경위생팀장



백종섭 국장과 팀장들

니 협회의 교육을 꼽았다. 협회만큼 교육을 많이 시행하는 기관도 많지 않다고 한다. 혹시 아쉬움 점도 있지 않을까.

고평기 환경위생팀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전센터의 경우, 교통요지인 대전에 위치한 만큼 전국 단위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전국 지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지요. 근로자들도 전국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포진된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협회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전국 단위의 사업장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고 한다.

장·단점이 섞여 있는 답변이다. 요점은 전국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지역단위로 보면 소규모사업장이라는 점이다. 협회의 17개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산업보건 12월호가 발행될 즈음, 대전센터는 대덕구청, KT&G와 함께 ‘난방텐트’ 나눔 활동을 펼친다.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난방텐트를 설치하는 봉사활동, 따뜻함을 나누는 행사이다. 거실이나 방에 난방텐트를 설치하면 내부 온도가 4도 이상 상승하는 보온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전센터의 2016년은 난방텐트만큼 따뜻할 것이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많이 움츠린 만큼 활동영역을 크고 넓게 펼쳐 증부권 사통팔달 산업보건기관의 위상이 더 강화되기를 기원한다.

대전산업보건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전화 : (042)933-3200 ☎